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무척 많은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백 번 천 번을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같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읽은 책의 의리(義理)\*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 깊이 명심해라.

\*의리(義理): ‘책에 담겨 있는 올바른 이치’를 뜻함.

(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 읽고,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멈추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아무리 난해해도 계속 읽으면 곧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읽는 것이다. 이렇게 각주, 주석, 참고문헌 등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끝까지 읽는다. 딴 데로 새면 길을 잃게 된다. 모르는 문제는 붙들고 있어봤자 풀 수 없다. 다시 읽어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다시 읽어야 한다.

1. (가)와 (나)의 독서 방법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 비해 (나)의 방법으로 읽으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겠군.
  - ② (가)의 글쓴이는, (나)의 방법으로 읽으면 책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는군.
  - ③ (나)의 글쓴이는, (가)의 방법으로 읽으면 글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 ④ 동일한 책을 한 번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의 방법이 (나)보다 훨씬 많이 들겠군.
  - ⑤ 책의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하려면 (나)의 방법보다 (가)의 방법을 적용하면 효과적이겠군.

2. 독서 수행에서 (가)의 조언이 가장 필요한 학생은?

- ① 시훈 : 교양을 쌓고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청소년을 위한 철학서를 집중해서 읽는다.
- ② 혜윤 :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의 감동적인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지에 감상을 적어두며 읽어 나간다.
- ③ 동완 : 어려운 과학 도서를 골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며 머릿속에 별로 남는 게 없지만 계속 읽어 나간다.
- ④ 현서 : 경제학 이론을 알고 싶어 독서를 시작했지만 경제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려워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제학 사전을 참고하여 읽어 나간다.
- ⑤ 은기 : ‘고교생이 읽어야 할 소설 50선’의 작품을 읽으면 작품 이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읽은 후 독서 감상문을 작성한다.

3. (나)의 저술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할 독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읽어본다.
- ②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간다.
- ③ 각주, 주석, 참고문헌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읽는다.
- ④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여러 번 읽는다.
- ⑤ 난해한 문장은 딴 데로 새지 말고 그 문장만으로 다시 해석해야 한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음악이 없는 문화권은 없으며 음의 높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보편적이다. 거기에서 더 특별하게도 인간이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어느 문화권의 음악에서건 어떤 음의 진동수의 2배의 진동수를 갖는 음은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이지만 원래 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이러한 음의 순환성을 ‘크로마(chroma)’라고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서양 음악이든 인도네시아의 가믈란 음악이든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음악 전통에서 발견되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①일으킨다. 이러한 옥타브의 특별한 지위에 추가하여 진동수가 2:3의 비를 갖는 두 음사이의 간격인 5도(가령, 도-솔) 음정이 서로 잘 어울려 협화적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음정 인식의 보편성은 뇌를 비롯한 신경 체계가 청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긴다.

음정을 인식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협화적이라고 인식되는 음정을 바탕으로 음계가 만들어지므로 여러 문화권의 음계도 공통성을 갖는다. 27,000년 전에서 21,000년 전 사이의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 즉 속을 파내고 적당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새 뼈의 발견을 통해서 이때 이미 음계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음계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하여 선택된 음의 집합을 일컫는다. 음계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기본적으로 옥타브 순환성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옥타브 안에 몇 개의 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문화권마다 상이하지만 전혀 소통이 없었던 문화권 사이에서도 음계의 음들이 일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음에 대한 선호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음계가 출현하기도 한다. 5도의 협화성을 토대로 한 피타고라스 음계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 삼분 손익법(三分損益法)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고안되었고, 현대 서양의 표준 음계인 ②평균율을 서양인들보다 먼저 16세기 말에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명나라 사람 주재육(朱載堉)이었다. 평균율은 온음이 반음의 2배의 간격을 갖고 반음은 모두 동일한 간격을 갖게 하여 한 옥타브에 12개의 반음을 등간격으로 ③배치하는 방식이다. 주재육이 일찍이 옥타브를 12등분하는 반음의 간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사실은 서양인들을 놀라게 했다.

④음악에 보편성이 존재하는 다른 이유를 우리는 인간의 뇌에서 찾을 수 있다. 음악을 관장하는 뇌의 장소는 소리를 1차적으로 인지하는 청각 피질과, 정서를 담당하는 대뇌변연계를 포함한다. 청각 피질은 귀의 청세포와 청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개별 음정에 대한 지각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청각 피질로부터 신호를 받는 대뇌변연계는 생존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반사 작용뿐만 아니라 본능과 정서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파충류의 뇌’라고 일컬어지며, 청각 피질로부터 받은 신호에 대하여 사고의 개입 없이 모든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악이 일으키는 정서적 공감이야말로 음악이 모든 인간 사회에서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중요하게 여겨져 온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다.

(나)

인도네시아의 전통 합주단인 가믈란(gamelan)은 서양 세계에 일찍부터 알려졌다. ‘가믈’은 망치를 의미하고 ‘안’은 행동을 의미하므로 가믈란은 ‘망치질’에 해당하는데, 이는 가믈란이 주로 타악기로 ⑤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관련을 갖는다. 가믈란에서는 거의 모든 악기가 선율 타악기여서 만들어지는 음향은 우리 농악대가 징, 팽과리, 장구 등의 전통 타악기를 중심으로 만들어 내는 리듬 양상들의 음향과는 사뭇 다르다. 크기가 다른 쇠막대가 한 줄로 늘어져 있는 ‘사론’이나, 한가운데 흑이 달린 징이 크기를 달리하면서 두 줄로 장착되어 있는 ‘보낭’은, 망치로 타격하면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선율과 음색이 창출된다. 그래서 가믈란 음악은 역동적이면서 특이한 쇠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양상들을 이룬다. 가믈란이 연주하는 곡은 주제에 해당하는 하나의 악절이 반복되거나 조금씩 변수가 이루어지면서 오래 지속된다. 이 음악에서는 역동적인 리듬이 정교하게 나타나면서 강한 타악기 소리가 곡을 ⑥이끌어 가는데 큰 솔 모양의 악기인 공(gong)이 내는 저음이 하나의 곡이 끝나고 새 곡이 시작됨을 알린다.

가믈란은 다양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슬렌드로와 펠로그이다. 이 음계들은 모두 진동수가 2배가 되면 같은 음 이름을 부여하는 옥타브 체계를 ⑦따르는 것을 제외하면 서양의 음계와 사뭇 다르다. 슬렌드로는 이웃하는 음 사이의 간격, 즉 음정이 대략 240센트\*로 균일하도록 설계된 5음 음계이고 펠로그는 이웃하는 음 사이의 음정이 불균등한 7음 음계이다. 가믈란에서는 악단마다 각기 기준음을 다르게 조율하지만 이웃하는 음 사이의 음정은 거의 정확하게 조율한다. 하지만 남겨둔 약간의 오차는 합주에서 맥놀이를 일으켜 울림을 증가시킨다.

서양 음악의 중심을 이루는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나오는 음과 같은 조화음은 사인과 형태의 단순음들로 분해가 가능한데, 그 단순음 중 가장 낮은 음을 기본음이라고 한다. 조화음의 단순음들은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서양적 감각에서는 조화음이 표준적인 아름다움의 바탕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가믈란의 중심을 이루는 막대, 솔, 징을 쳐서 나오는 음은 음을 구성하는 단순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가 아닌 비조화음이다. 가믈란이 연주하는 곡에서는 이렇게 서양인들에게는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비조화음이 곡을 이끌어 간다. 또한 악단마다 각기 다른 기준음을 갖고 악기들이 그에 맞추어 조율되어 있어서 개별 악단의 고유한 속성을 중시하는 음악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가믈란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독특한 존재 의미를 갖는 것과 연관된다. 가믈란은 종교적, 의식적, 교육적, 사교적 목적에서 널리 사용되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 존재한다.

\*센트(cent): 음정을 재는 미세한 단위. 한 옥타브의 1,200분의 1에 해당하는 음정

4. (가), (나)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음계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② 서양 음악이 조화음에 기반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계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 ④ 옥타브와 진동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⑤ 현악기와 타악기 중 더 오래된 것은 어느 것인가?

5.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 시대의 악기로부터 당시에 음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② 피타고라스 음계는 삼분 손익법을 활용하여 5도의 협화성을 구현했다.
- ③ 서양의 표준 음계인 평균율은 한 옥타브에 12개의 동일한 간격의 반음을 둔다.
- ④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이 같은 이름을 갖는 것에서 음의 순환성이 나타난다.
- ⑤ 5도의 협화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뇌를 비롯한 신경 체계의 메커니즘에서 기인한다.

6. <보기>는 ㉠의 음의 분포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음이름	C	D	E	F	G	A	B	C
음정(센트)		200	200	100	200	200	200	100

- ① D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D 음은 이웃한 C 음보다 400센트가 높아야 한다.
- ② A 음과 B 음 사이는 200센트로 온음, B 음과 C 음 사이는 100센트로 반음이다.
- ③ 200센트인 D 음과 E 음 사이 음정은 100센트인 E 음과 F 음 사이 음정의 2배이다.
- ④ C 음의 진동수가 f인 경우에 그보다 한 옥타브 높은 C 음의 진동수는 2f에 해당한다.
- ⑤ C 음과 그보다 한 옥타브 높은 C 음의 간격으로부터 1,200센트가 크로마의 주기임이 확인된다.

7. 윗글에서 알 수 있는 가플란 음악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타악기를 중심으로 곡이 전개되며 비조화음이 곡을 이끌어 간다.
- ② 막대와 징 모양의 타악기들을 때려서 역동적 리듬을 만들어 낸다.
- ③ 악단마다 기준음이 달라 악단마다 고유성을 갖는 소리를 만들어 낸다.
- ④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복하기도 하고 변주하기도 하면서 곡이 지속된다.
- ⑤ 선율 타악기에서 나오는 5개의 음만으로 맥놀이를 발생시켜 다양한 울림을 창조한다.

8.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마다 음악적 취향이 다른 것은 대뇌변연계가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발달되기 때문이다.
- ② 음악이 문화마다 개별성을 갖는 것은 대뇌변연계가 음악에 대한 정서 창출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 ③ 음악이 정서를 움직이는 것은 청세포와 청각 피질이 청신경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④ 음악이 문화권마다 독특성을 갖는 것은 사람의 대뇌변연계에 음정 지각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다.
- ⑤ 음악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대뇌변연계의 작용으로 사고의 개입 없이 정서적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9.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는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켰다.
- ② ㉡: 그들은 서로 배치하는 주장만 내세웠다.
- ③ ㉢: 십 년째 되는 날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다.
- ④ ㉣: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 ⑤ ㉤: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 윤리학자 존 롤즈는 당시 서구의 지배적 도덕 이론인 공리주의와 직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 정의론을 주창한다. 롤즈는 먼저 벤담, 밀 등의 공리주의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불이익을 정당화하거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상식적 정의관과 상충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타고난 직관으로 도덕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직관주의는 도덕

원칙을 따르는 근거나, 둘 이상의 원칙이 상충할 경우 해결할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를 비판한다.

롤즈는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롤즈는 사회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해만을 따지는 상호 무관심성을 지닐 때, 그 사회적 이익의 조정을 위해 사회 정의가 필요하며 이 조정의 원칙이 사회 정의의 원칙이 된다고 주장한다. 롤즈의 『사회 정의의 과제』는 이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먼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구성하여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는 기초로 삼는다. 원초적 입장은 합리적인 개인들이 도덕적 인격으로서 서로 동등하게 생각되고 그 결과가 모든 사회적 세력의 힘에 좌우되지 않는 정의로운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원초적 입장의 기초는 공정한 절차를 구성하는데 있으며, 이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결과는 정의롭다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롤즈는 여기에 무지의 베일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지의 베일은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계약 당사자 개인의 정보가 알려지면 이 정보를 이용해 원칙을 왜곡시킬 가능성과 관련된다. 롤즈는 왜곡 가능성을 제거하고 원초적 입장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당사자 개인의 우연적인 지적, 체력적, 배경적 정보가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과 앞서 언급한 상호 무관심성을 고려하여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이 타인의 선(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즈는 특히 직관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기본 가치의 분배에 관해 합의하게 될 정의의 일반적 원칙과 특수한 원칙을 제시한다. 정의의 일반적 원칙은 제1원칙으로서 자유, 기회, 소득, 재산, 자존심 등 사회적 기본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롤즈는 최소 수혜자에게 극대화된 이익을 분배하자는 최소 극대화 원리를 주장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시한다. 롤즈는 나아가 이 사회적 가치 가운데서 자유의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두 개의 특수한 정의 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최대의 동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각 개인은 모든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원칙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자유들은 정치적 자유,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적 재산 소유의 자유 등을 말한다. 특수한 원칙은 제2원칙으로서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차등의 원칙으로서,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까지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최소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져야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서, 불평등한 분배에서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지위나 직위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자신이 밝힌 다양한 원칙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하며, 다시 제2원칙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이 점은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자유로부터의 이탈이 사회적,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즈의 사회 정의론은 사회의 구조나 제도의 개혁에 필요한 정의의 기준을 원칙의 형태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합의를 거쳐야 함을 제시하여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후대에 일깨웠다고 할 수 있다.

#### 10. 윗글을 읽고 알기 어려운 것은?

- ① 롤즈의 사회 정의론의 기본적 입장
- ② 롤즈가 비판적 입장을 나타낸 도덕 이론
- ③ 롤즈가 제시한 기본적 자유들의 우선순위
- ④ 롤즈가 말한 정의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 상황
- ⑤ 롤즈의 사회 정의론의 의의와 후대에 끼친 영향

#### 11.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낙후된 주택을 재개발하여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축할 때 특히 상가에서는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심하다. 그것은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주로 상가 소유자와 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뿐 상가 세입자는 협의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소유자의 권리는 절대시되는 반면 세입자의 권리는 완전히 배제되는 ‘도시 재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소유자들은 만족감에 들뜨게 되지만, 세입자들은 약간의 이주비만 받고 상가를 비워야 하기에 고충이 심화된다. 특히 상가에 자신의 돈으로 인테리어를 해 장사를 해 왔던 상가 세입자의 경우 사업 시행 협의에서 배제되므로 하소연할 길조차 없게 된다. 더욱이 영업 이익을 위해 상가에 꾸몄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시행사와 극한적 갈등을 빚기도 한다.

- ① 시행사나 상가 소유자, 세입자들이 갈등을 빚는 것은 서로 자신의 이해를 따지는 상호 무관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재개발 과정에서 만족감에 들뜨는 상가 소유자와 상가를 비워야 하는 상가 세입자는 재산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에서 원초적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없군.
- ③ 시행사가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의거하는 ‘도시 재개발법’은 사적 재산 소유와 관련하여 타인의 선(善)까지 고려하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군.
- ④ 자신의 돈으로 상가에 인테리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세입자들이 재개발 사업 시행 협의에서 배제된 것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상가 세입자가 영업의 이익을 위해 상가에 꾸몄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게 된 것은 사적 재산의 소유를 침해당하게 되는 결과를 빚은 것이라 할 수 있군.

14. 위 글을 통해 볼 때, 앞으로 '하이브리드 엔진'이 '로터리 엔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유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② 시장 상황의 변화를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③ 제품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
- ④ 제품의 실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 ⑤ 잦은 디자인 교체를 지양하여 소비자가 친숙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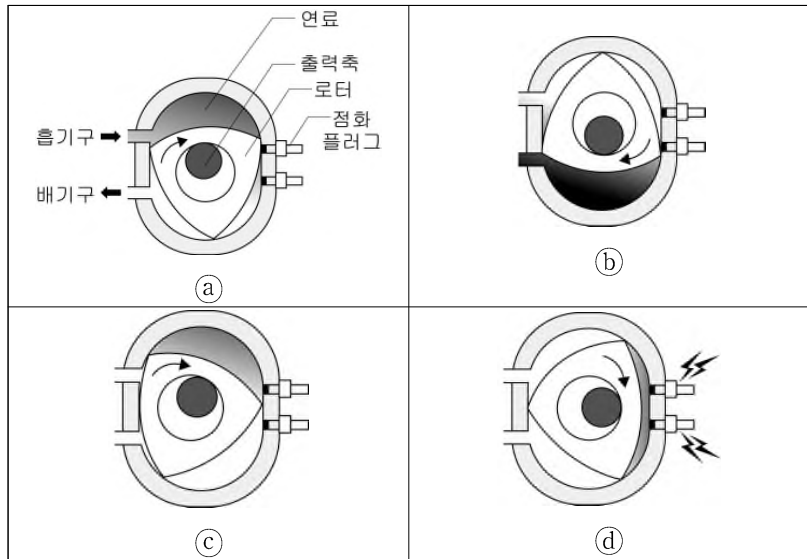
15. 'Ro 80'을 판매할 때, 선보였을 법한 광고 문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할 때! 친환경적 엔진 Ro 80!
- ② 지긋지긋한 소음이여 안녕! Ro 80, 소음을 잡았습니다.
- ③ 무거운 엔진은 가라! 엔진의 무게를 잡았습니다. Ro 80!
- ④ 에너지는 경쟁력! 현명한 당신은 Ro 80을 선택할 것입니다.
- ⑤ 신속한 가속과 고속 주행! Ro 80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16. 문맥으로 보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력(權力)                      ② 기초(基礎)                      ③ 성공(成功)
- ④ 아성(牙城)                      ⑤ 존립(存立)

17. ㉠의 작동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 ① a-c-b-d
- ② a-c-d-b
- ③ a-d-b-c
- ④ b-c-d-a
- ⑤ b-c-a-d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 이육사, 「소년에게」 -

\* 진준가: 진주인가.  
\* 한가: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층(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關)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

\* 청하: 푸른 연잎.

\* 노적 화층: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 일반 청의미: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1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 ② (가)의 '녋'과 (나)의 '흔'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를, (나)의 '으스러지도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꽃아다녀도'는 동경을,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를 의미한다.

20.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 ② 4연의 '곧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氣象)의 의미이겠네.
-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이겠군.
-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22.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씩'이 '잎'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 ⑤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23. (다)의 ㉠과 ㉡을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잇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과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 ③ ㉠은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 ④ ㉡은 '잇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 ⑤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 그러?"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놈으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냐?"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먼그러. 벨어낸벤또(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폴구싫어(차이코프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주는 춤이 읊는 순전 판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사는 물고기가 있다

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춤 봤구먼."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영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썬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뿔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칭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루다 객고가 썩여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 그런데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럽다 취맷으니께 과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웅색한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삭일 수가 없었다.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

"유 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떡했나?"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한 마리가 황소 너댓 값이나 나간다는디, 아까워서 그냥 내 뺨지기두 거시기 허구, 비싼 고기는 맛두 괜찮겠다 싶기두 허구 ..... 게 비늘을 대강 굽어서 된장끼 줌 허구, 꼬치장두 줌 풀구, 마늘두 서너 통 다져 놓구, 멸국도 줌 있게 지져서 한 고 뿌덜씩 했지유."

"뭣이 어찌구 어째?"

"왜유?"

"왜애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부찌지를 못하였다.

그는 하루바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사들의 정상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앉아서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올려다보고들 있었지만,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주야로 모셔 온 나날들이 그렇게 욕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듯 매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칙살맛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홀수형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영양 성분 표시 제도와 관련해 강연을 하게 된 ○○보건소의 △△△입니다. 2018년부터는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알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부 가공 식품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표시 도안을 같이 보시죠.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인 점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표시하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 번에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는데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개정 전보다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열량의 표시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던 열량, 당류, 트랜스 지방 중에서 당류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비율을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35.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강연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36. 다음은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이다. 시각 자료를 보며 강연을 들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정 전 표시 도안>

영양 성분		
1회 제공량 ○○(○○g) 총 ○○회 제공량(○○g)		
1회 제공량당 함량	% 영양 성분 기준치	
열량	○○○kcal	
탄수화물	○○g	○○%
당류	○○g	
단백질	○○g	○○%
지방	○○g	○○%
포화지방	○○g	○○%
트랜스지방	○○g	
콜레스테롤	○○mg	○○%
나트륨	○○mg	○○%

\* % 영양 성분 기준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개정 후 표시 도안>

영양 정보		
총 내용량 ○○g		
○○○kcal ㉔		
총 내용량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mg	○○%	
탄수화물 ○○g	○○%	
당류 ○○g	○○%	
지방 ○○g	○○%	
트랜스지방 ○○g		
포화지방 ○○g	○○%	
콜레스테롤 ○○mg	○○%	
단백질 ○○g	○○%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㉔은 영양 정보를 확인할 때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함량 표시 기준이구나.
- ② ㉔은 에너지 공급원순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표시한 것이구나.
- ③ ㉔은 소비자의 관심도와 국민 건강상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졌구나.
- ④ ㉔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위치를 구분해 표시한 것이구나.
- ⑤ ㉔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면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게 되었구나.

37.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가 다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같아.

- ① 영양 성분 표시 제도가 일부 가공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나요?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가요?
- ④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⑤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고량은 얼마인가요?



[38~42] (가)는 공개 토론 장면의 일부이며,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지금부터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하십시오.

**찬성1:** 우리 학교는 단순 다수제로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려 과반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렴되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사회자:**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까.

**반대2:** 투표 과정을 더 거친다고 후보자가 지닌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까요?

**찬성1:** 그렇다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겠지요.

**사회자:**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1:**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단순 다수제는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 다수제는 투표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시행하기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을 또 내야 하고, 투표소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사회자:**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까.

**찬성1:** 단순 다수제가 최선의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민주적 절차라고 하셨는데, 결선 투표제도 1차 투표는 단순 다수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더 거치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반대1:**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는 더 민주적일 수도 있겠네요.

**사회자:**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1:** 결선 투표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들 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민주적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하십시오.

**찬성1:** 반대 측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고등학교처럼 투표 방식을 변경하여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투표소 재설치 등의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이번 토론회는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

찬성 측은 입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므로 대표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회 시간에 배운 A나라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했지만 1차 투표율보다 결선 투표율이 낮아 당선자의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34%였다. 결국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34%만의 대표성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경우, 찬성 측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반대 측은 입론에서 단순 다수제가 1회만 투표하므로 더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나,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 학교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이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반대 측은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 제도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토론 단계에 따른 발언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 입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토론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론 단계에 적합하다. 한편,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담합의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상대측과는 달리 사례나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나는 이 토론을 보면서 ‘대표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찾아보니 국민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선거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사람을 선출한다. 따라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아진다.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 방식 개선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대표성 높은 후보자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 참여자와 청중 모두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교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쟁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두 모음이 연속해서 나오면 둘 중 하나가 탈락되거나, 둘 중 하나가 반모음으로 교체되어 이중 모음(반모음+단모음)이 되기도 한다. 또한 두 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먼저 ㉠두 모음 중 한 모음이 탈락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모음 ‘-’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가 탈락된다. 또 모음 ‘ㅏ/ㅑ’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ㅏ/ㅑ’가 탈락된다. 이러한 모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ㅅ’ 불규칙 용언의 경우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더라도 ‘ㅏ/ㅑ’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모음 중 한 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경우는 어간 말의 ‘ㅣ’가 ‘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서 ‘ㅓ’로 바뀌거나, 어간 말의 ‘ㄱ, ㅌ’가 ‘ㅏ, 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서 둘이 ‘ㅏ, ㅑ’로 바뀌는 현상 등이 있다. 이때 어간 말의 ‘ㅣ’나 ‘ㄱ, ㅌ’가 반모음으로 바뀌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만약 줄어드는 경우에는 줄어든 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오다’나 ‘~오다’로 끝나는 용언은 어미 ‘-아’가 결합할 때 본말 형태인 ‘오아’는 쓰지 않고 ‘와’만 쓴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음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그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피--어’는 [피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피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더불어 ‘ㅣ, ㅓ, ㅑ’로 끝나는 용언 어간 전체에서 반모음 ‘ㅣ[j]’가 첨가되는 현상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둘 중 하나의 모음이 탈락되는 현상은 중세 국어에도 있었다. ‘뼈(ㅍ--어)’처럼 어간의 마지막 모음인 ‘ㅍ, -’는 ‘ㅏ, ㅑ’나 ‘ㄱ, ㅌ’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다. 또 ‘놀라(놀라--아)’처럼 어간의 마지막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ㅏ’ 또는 ‘ㅑ’로 동일한 경우에 한 모음이 탈락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아 → 가야’처럼 탈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어간말 ‘ㅅ’이 사라지면서 모음이 연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중세 국어에서도 ‘느려와(느리--어와)’처럼 용언 어간 말의 ‘ㅣ’가 다른 모음 앞에서 반모음 ‘ㅣ[j]’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같은 환경이라도 ‘디여(디--어)’처럼 반모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반모음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어간 말의 ‘ㄱ, ㅌ’가 ‘ㅏ, 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반모음[w]로 바뀌는 현상이 있었는데, 마지막 음절의 어간이 ‘오-’로 끝나거나 어간이 ‘오-’이면 ‘오아, 오와’ 등의 활용은 찾아볼 수 없고, ‘와’로만 실현되었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반모음 ‘ㅣ[j]’가 첨가되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였군.
- ②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이 탈락되거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음절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군.
- ③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의 마지막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ㅏ’로 동일하더라도 한 모음이 탈락되지 않는 경우가 있군.
- ④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어간 말의 ‘-’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군.
- 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어간 말의 ‘ㅣ’와 ‘ㅏ’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면 ‘ㅣ’가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원래 없던 반모음 ‘ㅣ[j]’가 첨가되기도 하는군.

36.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	㉡	㉢
①	뜨--어→[떠]	바꾸--어→[바뀌]	견디--어→[견디]
②	긋--어→[긋어]	계시--어→[계셔]	나누--어→[나눠]
③	만나--아→[만나]	되--어→[되여]	싸우--어→[싸워]
④	건너--어→[건너]	가지--어→[가져]	뛰--어→[뛰어]
⑤	낫--아→[나아]	보--아→[봐]	보이--어→[보여]

37. <보기>의 문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ㄱ.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ㄴ. 철수가 도서관에 간다.  
 ㄷ. 영이가 자전거를 탄다.  
 ㄹ. 차가 정지했다.

- ① ㄱ~ㄹ을 사동문으로 만들면 이전 문장의 주어는 사동문에서도 주어로 활용된다.
- ② ㄱ과 ㄴ을 사동문으로 만들면, ㄱ과 ㄴ의 부사어는 각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 ③ ㄴ의 사동문에서는 동작주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야기되도록 시키고 있다.
- ④ ㄴ과 ㄷ은 어미 ‘-게’에 보조 용언 ‘하다’가 붙은 ‘-게 하다’나 접사인 ‘-시키다’ 등을 활용하여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다.
- ⑤ ㄷ과 ㄹ을 사동문으로 만들면, 각 문장은 모두 부사어가 있는 문장이 된다.

독도의 경제 지리



독도의 근해는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潮境) 수역으로서 플랑크톤이 풍부해 매우 훌륭한 어장이 된다. 희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꽂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룬다. 울릉도에서 독도 서북쪽에 이르는 일대의 울릉 분지에는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매장되어 있다. ‘하이드레이트’란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고 석유가 있는지를 알려 주는 지시 자원이다.

(나)



40. (가)와 (나)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정보를 일정한 서술 체계에 따라 제시한다.
- ② (나)는 심미적 요소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 ③ (가)는 (나)에 비해 대상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각 자료로 문자 정보를 보완한다.
- ⑤ (가)는 설명을 통해서, (나)는 압축적 표현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한다.

41. 다음은 학생이 (나)를 제작하기 위해 쓴 메모이다. (가)와 제작 계획을 고려하여 (나)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포스터 제작 계획**

☆ 독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독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임.

☆ 독도 사랑을 포스터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는 ㉠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 줌.

- ① ㉠을 위해 학생들이 잘 모르는 독도의 실제 지형을 활용한 점이 좋았어.
- ② ㉠을 위해 독도와 관련된 문자 정보는 우리 옛 문헌의 글꼴을 사용한 점이 좋았어.
- ③ ㉠을 위해 독도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 있다는 경제 지리적 가치를 제시한 점이 좋았어.
- ④ ㉡을 위해 독도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 안에 배치 되도록 한 점이 좋았어.
- ⑤ ㉠과 ㉡을 위해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 자료를 문자로 제시한 점이 좋았어.

42. 다음은 (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나눈 대화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빈:** 이 포스터의 내용들을 동영상의 형태로 제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혜:**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데?

**경빈:** 음,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포스터와 같은 형태로 마무리되면 좋겠어.

**민혜:** 그럼 동영상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동영상에는 정보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는 방식을 쓸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청각 자료도 활용할 수 있지. 그리고 움직임이나 시간의 흐름을 담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같은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정보들의 제시 순서를 다르게 하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지. 그런 점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 이를테면 ㉠

- ① ㉠은 처음부터 계속 배치를 해 두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야.
- ② ㉠의 자리에는 앞선 시대의 문헌상 기록들도 시간순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거야.
- ③ ㉠과 같은 배경 화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배경 음악을 통해서도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야.
- ④ ㉠은 남쪽에서 오는 난류와 북쪽에서 오는 한류가 이동하여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거야.
- ⑤ ㉠은 마지막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메시지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거야.

# 정답 및 해설

• 5회 •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⑤	5	②
6	①	7	⑤	8	⑤	9	⑤	10	③
11	③	12	⑤	13	②	14	⑤	15	④
16	④	17	②	18	②	19	③	20	④
21	④	22	⑤	23	⑤	24	③	25	④
26	④	27	③	28	④	29	①	30	⑤
31	①	32	③	33	④	34	③	35	

해설

[01~03] (독서 이론) (가)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 (나) 애들러,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1. [출제의도] 독서 방법에 대해 반응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 (나)는 서로 다른 독서 방법으로 난이도에 따라 독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책을 읽더라도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의 방법은 책을 읽다가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자세히 연구하여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방법이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의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한다면—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의 ‘각주, 주석, 참고문헌 등으로 빠져나가지 말고—딴 데로 새면 길을 잃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방법은 꼼꼼히 읽기를 하므로 동일한 책을 한 번 읽는데 (나)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2. [출제의도] 독서 수행 태도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는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속 읽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독서 태도이다. 조언이 필요한 학생은 어려운 도서를 골라 이해되지 않지만 읽어나가는 동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나)의 서술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멈추지 말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고, 모르는 문제는 붙들고 있어봤자 풀 수 없다며 다시 읽어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다시 읽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멈추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라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지 않다.
- ③ ‘각주, 주석, 참고문헌 등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끝까지 읽는다.’라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지 않다.
- ④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 읽고,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멈추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라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지 않다.
- ⑤ ‘아무리 난해해도 계속 읽으면 곧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읽는 것이다. 이렇게 각주, 주석, 참고문헌 등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끝까지 읽는다. 딴 데로 새면 길을 잃게 된다.’라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지 않다.

[04~09] (예술) (가) 「음악의 보편성」 (나) 「가물란 음악」  
<연계 : 수능특강 적용학습 주제통합 03강 - 기타와 평균율>

**4.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2문단에서 원시 시대에 관악기 형태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악기와 타악기 중 어느 것이 더 오래되었는지는 (가), (나) 모두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2문단에서 서양의 피타고라스 음계와 평균율이, (나)의 2문단에서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계인 슬렌드로와 펠로그가 차례로 제시되었다.
- ② (나)의 3문단에서 서양 음악의 중심을 이루는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나오는 음과 같은 조화음은 사인파 형태의 단순음들로 분해가 가능한데, 조화음의 단순음들은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기에 서양적 감각에서는 조화음이 표준적인 아름다움의 바탕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에서 서양 음악이 조화음에 기반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③ (나)에서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의 전통 음계인 슬렌드로와 펠로그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 ④ (가)의 1문단에서 어떤 음의 진동수의 2배의 진동수를 갖는 음은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2문단에서 5도의 협화성을 토대로 한 피타고라스 음계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 삼분 손익법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고안되었다고 하였으므로 피타고라스 음계가 삼분 손익법을 활용하여 5도의 협화성을 구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2문단에서 27,000년 전에서 21,000년 전 사이의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 즉 속을 파내고 적당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새 뼈의 발견을 통해서 이때 이미 음계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③ (가)의 2문단에서 현대 서양의 표준 음계인 평균율은 한 옥타브에 12개의 반음을 등간격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④ (가)의 1문단에서 어느 문화권의 음악에서건 어떤 음의 진동수의 2배의 진동수를 갖는 음은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이지만 원래 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이러한 음의 순환성을 ‘크로마’라고 부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⑤ (가)의 1문단에서 옥타브의 특별한 지위에 추가하여 진동수가 2:3의 비를 갖는 두 음 사이의 간격인 5도(가령, 도-솔) 음정이 서로

④ ㉠에는 피스톤 엔진이 견고하게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오면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너뜨리다’는 말에 어울려야 한다. 이로 볼 때 ④의 ‘아성’이 적절하다. ‘아성’은 ‘아주 중요한 근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7.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각 자료에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연료가 흡기구를 통해 실린더로 들어가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이것을 압축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로터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연료를 모으고 있는 ㉡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점화 플러그 쪽에 모인 연료가 점화 플러그에 의해 폭발하는 과정을 담은 것은 ㉢이다. 마지막으로 배기가스를 배기구를 통해 내보내는 것은 ㉣이다. 이렇게 볼 때에 순서대로 나열하면 ㉠, ㉡, ㉢, ㉣의 순서로 4행정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18~23] (갈래복합) (가) 이육사, 「소년에게」 / (나)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 (다) 이현보, 「어부단가」  
<연계 : 수능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 12강 - 어부단가>

18.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소년의 당당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의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머라’에서 추위에 당당히 맞서는 소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추위는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나)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겨울은 암울한 고통의 시대 현실이며, 이를 이겨내는 나무는 시대 현실에 맞서 자유를 성취해 내는 민중들의 모습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다)의 화자는 자연에서 한가로운 삶을 지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한가로움은 녹수와 청산을 바라보고, 흰 달을 바라보며, 어부 생활을 하며 바라보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만 자연과 화자의 물아일체를 엿볼 수 있다.  
④ (나)에서 겨울 나무와 봄 나무의 대비는 사물 자체의 속성을 대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박꽃은 소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아침 이슬, 진주, 연꽃, 맑은 냇’의 시어로 볼 때 순수한 모습을 빗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꽃은 겨울의 추위를 나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싹을 틔워 피워낸 것이기에 강한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차디찬’은 아침 이슬을 수식하고 있기에 ‘맑고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영하 13도’는 겨울의 추위이기에 시련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나)에서는 고난과 시련의 추위에 온 몸으로 대결하고자 하는 나무의 숭고함을 엿볼 수 있으나, (가)의 ‘냇’은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라기보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소년의 끈은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나무가 추위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거부라기보다는 당당한 수용에 가깝다.

20.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비교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와 (다) 모두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화자의 사고 전개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큰 강이 목 놓아 흐르고 여울이 돌에 부딪치는 것을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다)에는 자연의 풍경이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② (다)는 4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기에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가)에서는 한 연이 3행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규칙성은 있으나, 음보가 일정한 규칙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다)는 2수의 초장, 3수의 초장, 4수의 초장 등에서 대구의 표현이 드러난다.  
⑤ (가)의 2연 ‘자랏어라’, 5연의 ‘서 봐도 좋다’, 7연의 ‘미친들 어머라’에서 영탄의 어조를 엿볼 수 있다. (다)에서는 각 수의 종장에서 영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2수와 4수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는 육사의 유년 시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년 시절의 체험이 육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그의 유년 시절의 체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6연에서는 서풍이 뺨을 스치고 하늘 끝 구름 뜨는 곳의 회고 푸른 즈음을 노래한다고 했으므로 노래는 소년의 지사적 기풍이나 기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은 시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으며, <보기>에서 이러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기에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22. [출제의도] 시구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나무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내민 후 푸른 잎이 되기까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은 나무가 온 몸으로 꽃을 피워내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간결한 시에서 유사한 기능의 말을 반복한 것은 그만큼 그 과정의 시간이 길다는 것이며, 그 전후의 과정을 화자가 강조하는 것이기에 독자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한다. ㉠과 ㉡ 모두 나무의 외적 변화와 내면을 동시에 주목한 것이기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한 것은 아니다.

23.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에서 청산을 돌아보며 흰 달을 떠올리고 마음을 비우고 있다. 또한 ㉡에서 장안을 돌아보며 복잡한 세상사를 떠올리지만 그곳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화자는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때대로 ㉡의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수의 종장에서 화자의 최종 선택은 ㉡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4~27] (현대소설) 이문구, 「유자소전」  
<연계 :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 유자소전>

2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소설은 본래 주인공의 친구인 ‘나’가 주인공 ‘그(유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신 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시된 부분만을 보면 ‘~는 것이다.’ 형태의 종결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전지적 시점으로 보인다. 보통 관찰자 시점이라면 작품의 부수적 인물인 ‘나’가 주인공 및 작품 속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이야기하는 방식인데, 이 글에서는 주인공 ‘그’의 내면과 외면이 모두 자세히 드러나 있다. 서술자는 하층민에 속하면서 ‘총수’ 집안의 연못에서 호사하는 비단잉어에 대해 매우 못마

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32~34] (고전시가) 안조원, 「만언사」  
 <연계 : 수능특강 적용학습 갈래복합 09강 - 만언사>

**3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강 위에 배 떠나니'는 이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산천이 근심하니'는 이별의 슬픈 마음을 자연물에 이입한 것으로, 대조적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대구와 대조, 열거를 통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인생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② '늪우친들 무엇하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지난날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소용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배를 수행하는 사령인 '관차'를 '뱀'에 비유하여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물'이 자신의 근심을 머금고 있다고 하였으며, '수풀'의 '이슬'을 눈물에 비유하여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33. [출제의도]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비'는 죽을 줄 모르고 불로 뛰어드는 대상으로, 화자가 유배를 가게 된 실수를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있으며, '두견'은 유배를 떠나는 화자의 슬픈 정서를 대변하는 대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화자를 비유한 대상이고, ㉡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므로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이 아니다.
- ② ㉠은 과거에 화자가 잘못을 했던 모습을 비유한 것이고, ㉡는 현재의 화자의 모습을 환기하고 있으므로 비극적 미래를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과 ㉡는 화자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화자가 연민하거나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⑤ ㉠은 화자를 위기에 빠뜨린 대상이 아니고, ㉡는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큰 액이 부닥뜨리니 눈조차 어둡구나.'에서 '큰 액'은 자신을 위기에 빠트린 일이 아니라 자신이 위기에 빠질 앞으로 일어날 일이며, '눈'이 '어둡'다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으로, 나이가 많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 마가 낀다는 의미로, 대전 별감을 하며 잘 지내다가 귀양 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 ② 화자가 유배의 형을 받기 전에 감옥에 있으면서 목과 손발에 차고 있었던 것이 '칼'과 '족쇄'이다.
- ④ 대전 별감까지 지냈던 화자이지만 가족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과 막막함은 유배 가는 길에 겪은 애환과 고통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아득한 구름 속에 갈매기 날 뿐이로다.'에서 '갈매기'는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이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허망함이 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35.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3문단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만큼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자료를 인용한 까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 성분 표시 순서를 변경한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강연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③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④ 강연자가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⑤ 제시된 강연 부분에서는 청중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듣기 전략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2문단에 의하면 '당류'는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2문단 중간 부분에 의무 표시 성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의무 표시 성분으로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1회 제공량'에서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 함량 표시 방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② 3문단을 보면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개정 전 표시 도안이므로 적절한 생각이다.
- ③ 3문단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진 데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 ④ 4문단에서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개정 전과 비교해 보면 그 위치를 구분해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에서 '소비자들이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강연에서 말한 내용을 추가 설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강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일부 가공 식품'에 한하여 영양 정보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결정되는지는 강연 내용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③ 2문단에서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지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 ⑤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대해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필자는 ‘반대 측’이 ‘현 제도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⑤ 3문단에서 필자는 ‘반대 측’이 ‘상대측이 주장하는 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 것이므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에 반영된 생각만을 찾아야 한다. (가)의 4문단을 보면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일이 2주 이상 걸리는 경우 방학을 활용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학교 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측에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4문단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여름방학 기간 단축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가)에 반영되어 있다. ㄹ은 여름방학 단축의 이점인데, 이는 (가)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ㄷ은 예상되는 반론을 떠올린 것인데, (가)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수업의 연속성 확보와 학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제시하여 (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나)의 어느 부분에서도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1문단에서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글의 목적은 ‘그 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나)의 2문단에서 여름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학기 중보다 학습 부담이 커져서 여름방학 기간에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 ③ (나)의 3문단을 보면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 ④ (나)의 4문단을 보면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지난 학기 중 특별실 보수 공사를 하였지만 불편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45. [출제의도]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 부분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을 묻고 있다. [A]의 핵심 내용은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것이다. 여름방학 기간이 서로 다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는,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교 시설 공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것은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나)의 4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
- ②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험 학습 일수 제한’은 (나)의 3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 ③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은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 ④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지만 학년 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는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과는 연결되기 어렵다. 또한, [A]는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진술이므로 오답이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④	37	③	38	③	39	③
40	④	41	②	42	①	43	⑤	44	④
45	⑤								

**3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이해-중세 국어의 음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현대 국어에서도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ㅡ’가 탈락되고, 또 모음 ‘ㅏ/ㅑ’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ㅏ/ㅑ’가 탈락된다. 이는 음절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을 통해 현대 국어에서 ‘피-+-어’는 [피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피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점과, ‘ㅏ, ㅑ,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전체에서 반모음 ‘ㅣ’[j]가 첨가되는 현상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을 통해 ‘디어(디-+-어)’처럼 ‘ㅣ’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반모음이 삽입될 때 그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반모음 ‘ㅣ’[j]가 첨가되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2문단을 통해 현대 국어에서는 ‘ㅏ’ 불규칙 용언을 제외하고 모음 ‘ㅏ/ㅑ’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것처럼 어간의 마지막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동일하면 한 모음이 탈락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가-+-아 → 가아’처럼 어간의 마지막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동일하더라도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의 마지막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ㅏ’로 동일하더라도 한 모음이 탈락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2문단을 통해 현대 국어에는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ㅡ’가 탈락된다는 점을, 5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도 ‘떠(ㅌ-+-어)’처럼 어간의 마지막 모음인 ‘ㅌ’, ‘ㅡ’는 ‘ㅏ, ㅑ’나 ‘ㅓ, ㅕ’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어간 말의 ‘ㅡ’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현대 국어에서는 어간 말의 ‘ㅣ’가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서 ‘ㅏ/ㅑ’로 바뀌기도 하지만, ‘피-+-어’를 [피어]로 발음하는 것처럼 반모음 ‘ㅣ’[j]가 첨가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서도 ‘느려와(느리-+-어와)’처럼 용언 어간 말의 ‘ㅣ’가 다른 모음 앞에서 반모음 ‘ㅣ’[j]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디어(디-+-어)’처럼 반모음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모두 어간 말의 ‘ㅣ’와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면 ‘ㅣ’가 반모음